

임용시험 후기

이태무진(2004학번)

응시지역: 광주(2005년 12월)

근무지역: 무진중

교육학 공부

저는 교육학을 6월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주위 여자후배들이 주로 스티디를 하고 동영상을 들으며 하였던 것과는 달리 5, 6원을 교생실습한다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전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교생실습을 끝내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니 준비 안된 교육학과 전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조화섭 교육학 테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엄청난 분량에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마침 운 좋게 당시 후배가 전해준 전태련 교육학 mp3 강의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7월 한달 동안 무작정 강의를 2번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다 알 것 같던 교육학 지식이 마인드 맵을 그려 볼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아 다시 무식하게 8월 한달 동안 강의를 2번 더 들으며 노트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노트 5권을 적으며 서브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느 정도 문제도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부터는 그 노트만 외워도 기본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99년부터 2005년 까지의 교육학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문제가 다시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풀 때 자신감도 더 생기고 '아~ 이대로 공부해 가면 문제는 맞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2번 정도 풀 후에는 전태련 심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도 후배가 mp3파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강의는 듣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가며 틀린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놓고 그것만 다시 반복해서 풀고 서브 노트에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교육학은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시간을 더 쏟아 넣고 싶은 과목이었지만 시험 중 20점 밖에 차지 않는 시험이라는 걸 생각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공 영어 공부

<교수법>

전공 영어는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이었습니다. 4학년 올라가던 겨울 방학 동안에 박현수 기본강의, 심화강의, pllt, tbp강의를 한번 훑으며 들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전공 영어에 대한 방향이 생기는 것 같고 교수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pllt, tbp는 이제 임용 시험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pllt 와 tbp를 원서로 읽는 것은 여름 방학을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대신 박현수 build up책을 임용 전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며 pllt, tbp와 관련된 교수법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임용고사에 교수법 관련해서 상식을 묻는 문제는 나올 거라 생각했고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도 이번 임용에 마침 나와서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을 읽어나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임용의 특성상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apple책을 반복해서 읽어나갔습니다. 마침 4학년 2학기에 apple책 특강을 이흥수 교수님께 배우던 터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습으로 2번 정도 읽고 수업 후 복습으로 1번 정도 읽자 임용을 며칠 앞두고는 하루 만에 apple책을 한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apple 자료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2004, 5년 임용에서 많이 인용되고 그

script자체가 그대로 시험에서 사용되었던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 임용에서도 적어도 3문제는 apple관련 지문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들으며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도 불안해 하지 않고 apple 책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가 apple책에서 나와서 그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틀렸을 문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apple을 반복해서 6번 정도를 읽었던 것이 아주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동영상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병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평가' 책에서 임용강사(캐빈신팀)들이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강사들이 만드는 문제를 일일이 다 풀지 않아도 내가 그 책을 다 읽고 정리해 놓는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평가 책을 읽고자 했는 데 2학기 다른 전공을 하느라 평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영어학, 영문학>

영어학은 아는 후배로부터 얻은 캐빈신팀 기본강의 동영상에 있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6월부터 강의를 들었고 영어학은 기본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의 심화 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강의 책이랑 기본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어학은 나오는 부분이 음성학이나 통사론이 강조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과 금년에 시험 내려 들어가신 교수님이 통사론과 음성학에서 많은 문제를 내시는 바람에 영어학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어학이 공부하기 싫을 때는 항상 노트북으로 영어학 기본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임용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 10번 정도 동영상을 들으며 영어학에 대한 감을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영어학은 기본만 외우고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문학은 준비할 시간과 자료가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방대한 영문학 자료 중에서 내가 본 것이 나오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많은 다양한 영어자료를 읽는 것이 낫겠다 싶어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전에 읽었던 영어소설들이나 간단한 영어 수필들을 읽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영어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영문학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 당일 날>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용 시험에 오는 사람들은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하리란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의 평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집중력을 위해 박하사탕을 가져가서 먹었고 초콜릿도 가끔 먹어 줬는 데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광주는 2차 시험으로 인한 점수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었기에 쉽게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점수가 너무 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 붙으면 그때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침 연락이 닿은 미라, 치원, 유미, 효선 등과 2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차 준비로는 논술, 영어에세이, 면접 등이 있었는데 하루에 논술 한편, 영어에세이 한편씩 써보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전날 미리 써온 글들을 돌아가며 읽고 글의 통일성, 단어의 적

절한 선택 등을 체크하며 서로 글을 감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술의 글자 수를 맞추기도 힘들고 글의 통일성도 없었으나 10편의 글을 써가자 어느 정도 논술에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에세이도 글을 계속해서 써감에 따라 영어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고 글의 통일성까지 더해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각자의 mp3를 탁자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해온 문제를 5개 엄선해서 실제 인터뷰처럼 연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이상한 말투를 사용했으나 자신이 한 면접을 mp3를 통해 다시 듣는 기회를 갖게 되자 점차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도 우리가 엄선했던 30개 이상의 면접자료에서 거의 다 나와서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인터뷰가 없었으나 지금의 추세로 보아 영어 인터뷰가 2차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전공 자료를 영어로 읽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좋은 영어교사로 교단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 부족한 글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늘 맑고 푸르게....